

'태권도 활성화 함께 하자'

오승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등과 환담

태권도진흥재단 오승환 이사장은 지난 1일 오후, 취임 인사를 위해 전북도청과 전북경찰청을 찾아 송하진 도지사, 진교훈 경찰청장 등과 환담을 갖고 국기 태권도와 태권도원 발전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전북경찰청을 찾은 오 이사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라며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전북 경찰 가족들의 태권도원 방문과 일선 경찰관들의 무에 단련 시 도복과 프로그램 지원을 적극 논의하고 특히 국기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태권도진흥재단의 노력에 전북 경찰청도 함께 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진교훈 청장은 "공인 3단으로 경찰 가족이자 태권도 가족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며 "국기 태권도를 위해 노력하는 태권도진흥재단을 응원하며 태권도 발전에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전북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송하진 도지사는 "국기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태권도진흥재단을 응원한다"라며 "태권도원과 관련한 사업들이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해 가겠다"라고 말하며 태권도를 활용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을 함께 개발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오승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태권도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태권도진흥재단의 발걸음에 전라북도가 함께 해주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재단은 전라북도와 더욱 밀접하게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승환 이사장(사진 왼쪽)이 지난 1일 전북경찰청을 찾아 진교훈 전북경찰청장과 태권도 발전 등에 대한 논의를 한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오승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송지용 전북도의회의장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을 조만간 예방하고 도의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 그리고 태권도를 통한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등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손흥민, 펠레 선택 받다

메시·호날두와 FIFA21 베스트11 포함

손흥민(토트넘)이 '축구황제' 펠레가 선택한 베스트11에서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일렉트로닉아트(EA)의 온라인 축구게임 'FIFA21'은 2일(한국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펠레가 선택한 FIFA21 베스트11을 공개했다.

세계적인 축구 영웅 펠레의 선택을 받은 손흥민은 3-4-3 포메이션에서 왼쪽 윙백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펠레는 베스트11의 대부분을 공격수로 구성하며 초호화 라인업을 과시했다.

최전방에는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를 중심으로 앙투안 메시와 호날두를 세웠다.

손흥민과 모하메드 살라(리버풀)가 양쪽 윙백에 섰고,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와 지난해 세상을 떠난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디에고 마라도나가 중원에 자리했다.

수비라인에는 옛 동료 카를로스 아우베르투를 비롯해 세르히오 라모스(레알 마드리드), 치아구 시우베(첼시)를 세웠다.

독일의 세계적인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바이에른 뮌헨)가 골문을 지킨다.

영국 매체 더 선은 "펠레의 베스트11에서 (원래 포지션) 중앙 수비수인 선수는 2명뿐이다. 가능한 많은 공격수를 배치해 매우 공격적인 FIFA21 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모라이스 전 전북 감독, 사우디 알힐랄 우승 후 결별

새 사령탑에 자르딤 선임

조세 모라이스 전 전북 현대 감독이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알 힐랄의 리그 우승을 이끈 뒤 결별했다.

알 힐랄 구단은 2일(한국시간) "레오나르두 자르딤(포르투갈)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달 소방수로 알 힐랄 임시 지휘봉을 잡았던 모라이스 감독은 팀을 떠나게 됐다.

모라이스 감독은 지난달 3일 성적 부진으로 물러난 호제리우 미칼레(브라질) 감독의 후임으로 알 힐랄에 부임했다.

리그 5경기를 남긴 상황에서 2위 알 사비브와 승점이 같았던 알 힐랄은 모라이스 체제에서 잔여 경기 무패(4승1무)를 달리며 2시즌 연속 정규리그 정상에 등극했다.



우승으로 더블(2관왕)에 성공한 뒤 팀을 떠났다. 이후 차기 행선지를 몰색하던 그는 알 힐랄 부임 한 달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모라이스 대신 정식 감독으로 선임된 자르딤 감독은 2016~2017시즌 AS모나코(프랑스)에서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 우승을 차지한 지도자다. /뉴시스

프로축구선수협, 체장암 투병

유상철 감독 위해 성금 모금

프로축구선수협회가 2일 "유상철 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의 체장암 극복을 지원하며 성금 모금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유 전 감독은 2019년 11월 체장암 판정을 받은 뒤 모든 활동을 중단한 채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이번 성금은 K리그 전 구단에 소속된 선수들의 자발적 참여로 유 전 감독의 쾌유를 비는 선수협 의지가 담겼다.

김흥기 선수협 사무총장은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에서도 유상철 전 감독님의 투병 소식을 알고 있으며 걱정을 전해왔다. 특히 몇몇 일본 선수들도 감독님의 소식을 몰으며 응원 보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금 운동을 통해 미약하게나마 유 전 감독님께 힘이 됐으면 좋겠다. FIFPRO와 선수협은 유 전 감독님의 쾌유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북체육회, 전문체육 지도자 간담회 개최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협조

코로나19 예방수칙 등 요청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도 진행

전북체육회(회장 정장선)는 '제3차 전문체육 지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선수 경기력 향상 방안 등 전북 체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북체육회는 체육지도자들에게 ▲국내외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협조 ▲전북스포츠과학센터·선수트레이너 적극 활용 ▲코로나19 예방 위생수칙 ▲금주야무 복용금지 ▲선수(성)폭력 예방교육 철저 ▲우수선수 관리 등을 요청했다.

특히 스포츠인권이슈센터 소속 최선광 전문 강사가 이날 아동학대 예방(신고자) 교육과 개인



정보 보호 교육을 진행했다. 유인택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지도 및 훈련에 많은 어려움이 많겠지만 더욱 힘써달라"며 "인권친화적인 체육환경 속에서 선수들이 오롯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